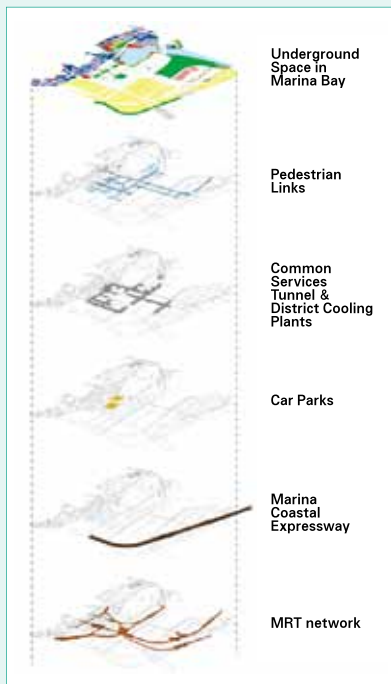


싱가포르, 마스터플랜 2019 계획안 발표

<https://www.ura.gov.sg/Corporate/Media-Room/Media-Releases/pr19-13>

<https://www.ura.gov.sg/Corporate/Planning/Draft-Master-Plan-19>

<https://www.ura.gov.sg/Corporate/Guidelines/Circulars/dc19-04>



마리나베이의 지하개발계획

자료: 2019 마스터플랜 홈페이지(<https://www.ura.gov.sg/Corporate/Planning/Draft-Master-Plan-19/Themes/A-Sustainable-and-Resilient-City-of-the-Future/Creating-Spaces>)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이 향후 10년에서 15년간 싱가포르 국가 개발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 2019)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살기 좋고 포용적인 지역 만들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자동차에 덜 의존적인 주거지역을 만들고, 현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장소와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와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인구구조 동향과 수요 및 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여 종합의료시설·보육시설·노인복지센터 등 시설 입지를 결정한다. 공원 면적은 1,000헥타르 이상 확대되고,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90%가 도보거리 10분 내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친숙하고 오래된 공간의 재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중심업무지구(CBD)에 2만 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도심의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CBD 인센티브 제도(CBD Incentive Scheme)가 적용되는데, 리모델링 후 20년이 지났거나 최소면적 1,000m² 규모의 오피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한다.

중앙지역 외에도 베이쇼어(Bayshore), 다코타크레센트(Dakota Crescent), 파러파크(Farrer Park) 등 주거지역과 편의시설이 확대·정비된다. 이때 지역의 특성과 문화,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개발을 통한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전략 가운데 하나로 도시철도 네트워크와 주차장, 변전소 등 산업시설, 수도·전기시설, 보도 연결로를 지하로 이전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마리나베이(Marina Bay), 주롱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 풍골디지털지구(Punggol Digital District) 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3D 기술을 활용해 지하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미래에 이용 가능한 부지 확보

파시르판장(Pasir Panjang)에서 마리나อีส트(Marina East)까지 연결되는 남부 해안가를 주요 관문이자 새로운 도시생활공간인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런트(Greater Southern Waterfront)'로 개발한다. 또한 파야레바르(Paya Lebar) 공군 기지를 이전하여 생기는 800헥타르 부지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